



봉우 컬럼

##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길 원한다. 하나님이 또렷한 음성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해라'고 말해줬으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다. 그것은 죄의식의 소리로, 일평생 나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다. 양심이 인간의 소리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야 한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그에게도 양심의 소리가 들렸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는 잘나빠진 명예를 지키려고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라'며 그의 죄를 묻고 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총애를 입던 제자였지만 은 삼십 냥에 스승인 예수를 판 자다. 그런 그에게도 양심의 소리는 울렸다. 그래서 그는 괴로워 은 삼십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져다주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27:4). 그리고 회개했다면 좋았을 것을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렇듯 양심의 소리는 누구에게든 들린다. 그러나 이 양심의 소리에 한 번, 두 번 등 돌리면 양심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 버림받게 된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므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딤후4:2).

양심은 좋고 나쁜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영의 메시지다. 2015년, 올해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 옳은 길, 정도로 행하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딤후1:19).

# 새로운 30년, 명품인생, 명품교회로

역사는 시작되었다. 2015년은 우리 교단 역사의 또 다른 시발점이다. 송구영신 예배 및 신년축복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화두는 새로운 30년, 진실과 정직을 모토로 짚통에서 명품으로 거듭나자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당신의 목회 30년을 통하여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내셨다. 목사님은 그 비결을 진실과 정직이라 말씀하신다. 목사님으로서는 2015년이 다시 0으로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30년의 출발을 외치는 원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눈 덮

에 묻고 내려가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때 교육 받고 돌아간 제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한국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나를 따라온 제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거짓, 얼렁뚱땅,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무책임한 짚통자세로 일관한 제자들은 지금 목회조차 못하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잘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제자들뿐입니까? 나를 따라오던 성

내가 날마다 일기를 쓰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명품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달마다, 매년, 자신을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결코 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201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30년을 출발함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진실과 정직을 인생의 모토로 삼기 바랍니다. 남에겐 진실되고 나에게 정직한 삶, 곧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 복을 받아서 앞으로 30년, 상상할 수



2015 신년축복성회(2015. 1. 1 ~ 2, KBS88체육관)

인 산야요, 물 없는 사막을 목사님과 함께 걸어온 제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명품인생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나는 짚통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거짓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오직 진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달려왔더니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을 이루고 전 세계 70여 개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짚통인생에서 명품인생이 된 것입니다. 2005년인가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에 들어온 외국 목회자들에게 나는 거짓을 난도질해서 기도원

도들 중에도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하더니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 무책임으로 방종하다가 멸망하는 장로, 집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서도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계신거죠. 다시 말하지만, 짚통은 절대 안 됩니다. 걸만 뻔지르르하게 해놓고 팔만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후 책임은 지지 않는 짚통, 경찰이 오면 도망가기 바쁜 짚통, 곧 불법과 무책임의 대명사입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디 가고 답답해보여도 진실과 정직이란 책임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미련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곧 첩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나 뗏뗏하고 당당한 명품이란 곧 부지런하고 청결하며 법을 준수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없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산위의 동네다. 숨길 수 없다. 품위와 품격을 갖춰 노는 물이 달랠야 한다. 명품교회와 명품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새로운 30년이란 화두는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30년 전, 자신이 가졌던 꿈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다는 고백들이 들리고, 짚통에서 명품으로 변모하기 위한 결심과 결단의 각오들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변해야 한다. 변해야 산다. 혁신(Innovation), 이는 나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30년, 모두가 명품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2015년 이초석 목사 코스타리카 집회 1. 19(월) ~ 31(토) 산호세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계20:1~15)



#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자가 되라

2015년 신년축복성회에서 저는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짝퉁인생을 버리고 명품인생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짝퉁이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명품처럼 만든 거짓 상품이 짝퉁입니다. 짝퉁을 만든 사람은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짝퉁인생을 사셨다면 이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짝퉁처럼 짝퉁인생도 하나님의 눈은 물론, 거짓에 상응한 대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질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잠6:16~19).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시어 그 말씀과 행사가 다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적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신32:4). 진실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자녀된 우리도 진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시51:6).

여러분, 왜 축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짓된 삶 때문이고, 당신의 혀가, 당신의 마음이 거짓을 수시로 뱉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짜 명품, 곧 짝퉁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인격화하면 마귀일진대(요8:44),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No. 오히려 거짓된 자를 대적하십시오

### 진실은 어디서나 통하는 만국공통의 화폐다

니다. “나 주 여호와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겔13:8). 거짓말을 한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내치셨고(창3), 거짓말로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치셨습니다(행5:1~11). 인생에 걸립돌이 자주 생깁니까? 뭔가 된 듯하다가 장애에 부딪쳐 넘어지고 맙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아직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119:163~165). 그렇습니다. 진실은

빛과 같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이것저것이 다 장애물이지만, 빛이 들어오면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살았지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 진실했기에 옥에 갇힌 것마저 디딤돌이 되어 노예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5년으로 기억됩니다.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의 첫 시간에 세계 30여 개국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저는 “거짓말을 죽여서 이 기도원에 묻고 가라. 그 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목회에, 인생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강의 후 통 성기도 시 간에 많은 목회자들 이 눈물을 흘리며 거짓된 삶을 회개하고 청산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들 중에 목회에 성공한 자도 있고, 실패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차이가 있는 나? 성공한 자들은 정직과 진실을 실천했고 습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자와 함께 하시고, 진실된 자를 쓰십니다.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고 더러우면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제가 잘 나서도, 아는 게 많아서도 아닙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앞길에 장애를 제하고 능력을 입히사 세계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딤후2:20~21). 그러므로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끗하고 진실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된 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오늘날도 온갖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솔직히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12:19),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12:22),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시15:1~2),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32:2). 또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을 잘 헤쳐가려면 지혜가 필수인데, 이 지혜도 진실할 때, 정직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잠2:7).

여러분, 우리 진실되게 삽시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제가 70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거짓되게 사는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3).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목회 초기의 일입니다. 제가 몸을 돌보지

않고 집회를 다니다보니 아주 쇠약해졌습니다. 그 때 박 목사님이란 분이 제게 ‘제발 건강을 돌보라’며 웅담을 쥐어주면서 웅담의 효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소주 반잔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귀찮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느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가려다가 웅담을 먹으려고 성도들 먼저 식당에 보내고는 저 혼자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그만 주인

### 거짓은 어두움이고 진실은 빛이다

이 저를 알아보는 바람에 소주 달라는 말을 못하고 껌만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성도들이 소주 반잔을 시켜주면서 웅담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술을 먹었다’는 소문이 교회 안에 돈 것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먹었다’고 하자니 시험 들 성도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안 먹었다’고 하자니 거짓말이 되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날 단에 서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저 술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론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진실은 모든 것의 방패가 되고, 결국 오른손을 들게 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365일 매일매일 진실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처럼 께사함이 없이 살아봅시다(벧전2:22). 나다니엘처럼 간사함이 없이 살아보고(요1:47), 바울처럼 부정된 삶을 살지 맙시다(살전2:3). 사업을 해도 이익 좀 더 챙기려고 거짓되지 말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진실하고, 교회에서도 진실하게 모든 이들을 대함시다. 더욱이 진실된 믿음으로 살고(딤후1:5),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요4:23~24), 신자로서의 진실된 삶을 살며(엡4:25), 교회 안에서는 진리가 승리하게 함시다(딤후3:15). 그래서 앞으로 30년, 진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창대하여져서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신년축복성회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 목사님! 벌써 30년이네요!



1984년 가을, 더 정확히는 추석 무렵이었지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저녁식사 후 피곤한 터라 일찍 잠

자리에 들었는데, 아내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라 무슨 일이나고 물었더니 막무가내로 잠깐 같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옷을 걸치고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섰는데,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교육부지에 세워진 인복유치원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여의도 S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단지 내 S교회에 같이 다니는 집사로부터 소문을 들은 아내가 금요일야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다가 저를 데리러 왔던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난생 처음 본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도폐기시장도 그런 시장은 없었지요. 사람의 열기로 가득하다 못해 조명까지 뿌옇게 흐려져 있고, 장의자에 올라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사람, 또 다른

구석에는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강대상을 향한 중앙통로에, 길게 늘어 서서 똬지는 모르지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 등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놀라서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저를 아내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끝으로 데리고 가서 줄을 세웠습니다. 이윽고 차례가 되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마주섰습니다. 그 분은 다짜고짜 저의 눈을 까뒤집더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고 외쳤습니다. 순간 저는 몽롱한 상태가 되며 몸이 뒤로 젖혀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강도사이셨던 이초석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난 후 출석하던 여의도 S교회에서 부구역장 직분을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교지(敎志)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 무대가 S교회 아닌 예루살렘교회라는 것도 말입니다. 당시에 믿음이 일천한 저는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던 터라 부구역장이라는 직분을 받으면 세상

과는 완전히 단절해야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성도 직분도 감당키 어려운데 무슨 부구역장이냐며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S교회 조장님과 교구장 목사님께 “여의도 교회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집과 가까운 교회로 옮겨 좀 더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부구역장은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라며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철산예루살렘교회로 옮겨 출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핑계를 토씨 하나 빠지 않고 제가 밝은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교회를 옮긴 후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은 제게 주일학교 교사, 부장, 재정회계보조, 조장, 선교회회장 등의 직분으로 정신없이 잡아 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주시는 직분마다 ‘아니요’가 없이 나 자신도 모르게 ‘예’로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산리에서 여의도가 멀다고 했더니 교회를 옮긴지 얼마 안 되어 예루살렘교회를 인천(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사하게 만드셨습니다. 제 편에는 알팍한 계산으로 사자 굴을 피하고자 피했는데 하나님은 호랑이 굴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당시 차라

리 여의도 S교회 부구역장을 맡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초석 목사님과 저의 만남을 그렇게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강도사님이셨던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 32살, 목사님이 서른 중반이셨는데 30년 세월에 저도 머리숱이 많이 없어지고 목사님도 반백이 되셨습니다. 지난 30년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의 가족들과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으로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새로운 30년의 시작, 항상 강건하시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전파로 변함없이 국내와 지구촌을 마음껏 누비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제가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도종환 시인의 시 <답쟁이>로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축하드리려 합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답쟁이 앞 하나는/ 답쟁이 앞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서울예수중심교회 김종일 장로

# 일편단심(一片丹心) 열매



하나님께서 총회장님과 인연을 만드신 지도 벌써 25~26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출석하는 목사님과 평택순복음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 없이 망하는 도다”(호4:6). 마른 몸에 흰색 정장을 입고 약간 장발의 모습을 하신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외치고 계셨는데 그 분이 바로 총회장님이었고,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교회 안은 좁고 사람은 백백이 많아 공기도 안 좋은데다 떠들썩한 집회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은혜로운 집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밖으로 나갈까 생각

했는데 “땀이 아픈 사람 앞으로 나와.” 하시니 사람들이 강단을 향해 우루루 몰려갔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고 “할렐루야”를 연속 외치며 기뻐하는데 저는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 옆 자리에 눈이 보이지 않아 제가 성경구절 찾아주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 꽃의 색깔을 말하고 목사님의 코와 얼굴을 만지면서 가족과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는데, 저 역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총회장님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인천교회 철야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교회를 옮겨 올림피공원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니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당시 평신도

였던 저로서는 ‘이단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꿈을 주셨는데 우리 집 마당에 평소 없던 큰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수박 크기만 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열매를 따 주겠다고 올라가서 따오더니 열매를 반쪽으로 자르는데 열매 속에서 백색 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이 무슨 열매냐고 묻자 그 분 하는 말이 “이초석 일편단심(一片丹心) 열매” 라고 하였습니다. 꿈이 깨어 생각해 보니 처음 총회장님을 만난 장소부터 시작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만남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멍이 빠지지 않게 하시며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 꿈

을 주셨다고 믿습니다(욥32:18). 정몽주 시조 중에 “백골이 진토 되어 뉘이라고 있고 없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백골은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지나서 뼈가 어떻게 변하게 되고 진토는 흙 티끌을 뜻하는 것인데 죽어서 뼈가 티끌로 변할 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총회장님을 섬기라는 뜻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회장님의 관심과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30년”이 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결심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와 “Jesus is the Way”를 좌우명으로 하나님과 총회장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산예수중심교회 차명선 목사

# 행동하는 30년을 만들자!



인생의 봄인가 했더니 머리엔 벌써 하얀 서리가 내렸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등에 업고, 가슴에 안고 다녔던 애들이 이젠 시집, 장가들 나이가 되었으니 말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세월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자네는 예수중심교단을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나?” 이

것저것 헤아려 보지만 그리 딱히 내세울 것 없다. 안내위원장, 성가대장, 교육부장, 장로회장... 굳이 끄집어내니 타이틀은 몇 개 된다. 그러나 과연 직함에 맞는 일을 했을까, 과연 우리 교회와 교단에 유익이 되었을까? 새삼 부끄러워진다. 더 묻자면 ‘하나님께는?’

나는 다시 나에게 물었다. “앞으로 30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몇 년 전에 우리 형제들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사후를 준비한 것이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중심교단이 선포한 다시 시작하는 30년!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에게나 자기 몫이 있다. 새로운 30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크건 작건, 드러나는 일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건 자기 몫을 하면 우리의 30년은 물 흐르듯 잘 굴러갈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것이다. 마치 자동차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차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다. 소리 없이

내 일을 하리라,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하리라.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리라. 이제 2015년이다. 30년을 향하여 첫 걸음을 떼는 해다. 우리 말보다 실천하는 해, 말보다 행동하는 해가 되어 보자. 시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2:17).

이초석 목사님의 성역 30주년을 축하드리며, 30년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갑시다.

인천예수중심교회 장로회장 국순창 장로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기사다. 동아일보에 실린 가슴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 심장에 남는 사람 박준재

1996년 초겨울, 연변은 몹시 추웠다. 피골이 상접한 탈북자들이 밤마다 두만강을 넘어 물러왔다. 거리와 마을은 동남하는 탈북자로 넘쳐났다.

그때 머리 흰 50대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연길에선 가장 넓은 층에 속하는 120m<sup>2</sup> 짜리 아파트를 3채나 사서 탈북 고아들을 데려가 돌봤다. 1999년까지 3년 동안 그곳을 거친 탈북 고아는 200명이 넘었다. 그의 이름은 박준재. 미국 시민권자로 제프리 박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한중수교가 막 이뤄졌던 1992년 즈음 중국에 처음 왔다. 초기엔 흑룡강 성에서 사비를 들여 50여 개의 교회를 만들어 농민들을 전도했다. 미국에서 모텔 사업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그가 무엇에 끌려 중국 전도에 나섰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던 중 박 씨는 연변에 탈북자들이 몰려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곧바로 연길로 자리를 옮긴 박 씨는 흑룡강 성에서 전도했던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아 탈북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꽃제비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것이 박 씨라는 주장도 있다. 당시엔 연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도 없었다.

탈북 고아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중

국 공간에 두 번씩이나 체포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에 가서 잠깐 돈을 벌고는 그 돈을 들고 다시 태평양을 넘어 지구 반대편 중국으로 날아오기를 50여 차례나 반복했다.

그럼에도 2004년경부터 더이상 탈북자를 돌볼 수 없었다. 당시 탈북자의 공판 진입이 잇따르자 중국 당국은 대대적으로 탈북자를 검거했다. 박 씨는 도와주던 조선족에게 계속 탈북자를 돌본다는 조건으로 연길의 집 세 채를 넘겨주었다.

2004년 11월 23일 그는 마지막까지 돌보던 10대 부흥이를 포함한 6명의 탈북자를 데리고 연길에서 한국행 길에 올랐다. 하지만 유일한 길이던 베트남 루트는 그 즈음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머무르던 탈북자 468명을 한꺼번에 데려오면서 막혀버렸다. 박 씨는 미얀마 쪽으로 새 루트를 개척하기로 결심했고 12월 초 중국 국경을 넘어 미얀마에 도착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관에 두 차례나 연락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정글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한 이들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미얀마를 거쳐 라오스로 가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박 씨는 어느덧 63세의 노인이 됐지만 항상 일행의 맨 앞에서 열대림을 헤쳤다. 정글에서 헤맨 지 7일 만에야 드디어 라오스

가 건너다보이는 메콩 강에 도착했다. 밀항선을 구해 보았지만 1인당 1만 위안을 불렀다. 돈이 없었다. 고민하던 박 씨는 마을 시장에 가 튜브를 사려 했다. 시장을 다 돌아봐야 4개밖에 살 수 없었다.

강을 넘기 전 일행은 시장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박 씨가 기도했다.

“하나님, 천국에 가게 해 주세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제 아들이 계속 선교활동을 하게 해 주세요.” 무엇을 예감했을까. 그는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라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일행은 가장 연장자인 박 씨에게 튜브를 양보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래 보여도 미군 출신이다”라고 주장하며 기어코 여성과 아이들에게 튜브를 넘겨주었다. 그러곤 자신은 배낭만 메고 메콩 강에 뛰어 들었다.

유유하게 흐르는 듯했던 메콩 강은 막상 사람이 뛰어들자 사납게 변했다. 일행은 40분 가까이 정신없이 떠내려가다 강가 운데서 보트를 만나 구사일생으로 구조됐다. 일행 중 막내였던 부흥이는 이렇게 회상했다.

“물살이 세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 정신이 든 뒤 돌아보니 할아버지는 안 보이고 배낭만 물에서 들락날락하는 것이 보였어요.”

부흥이는 나중에 알았다. 박 씨는 헤엄을 잘 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가에서 몇 시간째 할아버지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행은 라오스 경찰에 체포됐고 한국 대사관에 통보가 됐다. 하지만 라오스 대사관도 이들을 무시했다. 이들은 목숨 걸고 넘어왔던 메콩 강을 다시 넘어 미얀마 경찰에 넘겨졌다.

미얀마는 이들을 복송하려 했다. 하지만 박 씨의 녀이 이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일까. 미국 시민권자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가 미얀마 한국 대사관에 박 씨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다. 그제야 한국 외교관이 나타났다.

미얀마 경찰이 말했다. “여기 들어온 북한 사람은 다 북에 보냈지만 너희는 한국 외교관이 왔으니 한국에 가게 될 것이야.” 정글을 헤맨 지 석 달 뒤 그들은 한국에 왔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다. 2005년 1월 2일 메콩 강에서 탈북자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박준재, 제프리 박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다. 잊어서는 안 될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며 소박한 이 글을 그가 머물고 있을 천국에 바친다.

“박준재 할아버지. 당신이 나침반을 들고 처음으로 헤쳤고, 어디엔가 녀이 머무르며 지금도 지켜주는 그 루트를 따라 2만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메콩 강에서 당신의 배낭을 건져 올리고 영영 울던 막내 부흥이는 얼마 전 컬럼비아대에 입학해 탈북자 최초의 아이비리그생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발췌: 동아일보  
주성하 기사**

교단소식



# 나의 목회 30년의 원동력은 진실이다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는 찬송으로 시작된 2015년 시무에 배가 지난 5일 구반포 엘루체 컨벤션에서 있었다. 교단의 모든 교역자와 장로, 그리고 봉사자 및 먼저 소천한 목회자의 사모 등 교회 전반에 지지대 역할을 해준 일꾼들이 모여 다시 시작하는 예수중심교단 30년의 새 장을 열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시무예배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목회 30년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진실’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했고, 남에게 진실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잠 2:7),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잠 15:8)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과거의 영욕을 뒤로하고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 중요시점에서 나의 목회 30년을 지탱해준 이 진실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인데, 이 유언은 대장부가 되라는 것과 진실하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통 큰 자가 되라는 뜻이며, 마음을 넓히려는 것이고, 어른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진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의 결핍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변의 법칙은 진실과 정직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400명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자는 미가야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제가 명품과 짝퉁에 대해 설교했는데, 명품은 진실된 것인 반면, 짝퉁은 거짓이요 가짜의 상징입니다. 명품은 자기 이름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만, 짝

퉁은 팔고나면 그만입니다. 무책임합니다. 이를 주의 종에게 적용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주님은 이를 선한 목자와 삯꾼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삯꾼 목자는 저 살자고 양을 무책임하게 버립니다. 어려운 순간이 되면 쫓겨나는 자들, 짝퉁목사요, 삯꾼 목사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문질러보고 깨트려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짓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압니까?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무마하려고 핑계될 때부터입니다. 핑계를 대려고 하면 벌써 맘속에서 거짓의 씨가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핑계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의 말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눅21:14~15).

진실은 빛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 시편 119편 162~165절에는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앞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빛 안에 거하니 장애물이 높은들 다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기로 말입니다. 이 결단

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법은 ‘누군가 나를 항상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명품목사가 되십시오. 명품교회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시무식은 장로님들이 주관했으며, 장로님들은 멀리서 온 교역자들의 차비까지 챙기며 사랑으로 섬겨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지난 4일 저녁에는 외국인인을 위한 파티가 동일한 장소에서 배설되었다. 목사님은 멀리 타국에서 신년을 맞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을 위하여 있는 나라임을 알고, 생각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 생각이 당신을 빛나는 미래로 안내할 것입니다.”

2015년은 진실과 정직, 그리고 사랑으로 준비된 예수중심교단의 해가 될 것이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